

# 장자도 여객터미널 개통

### 선착장 구축 완료... 11일부터 차도선 취항

군산시는 국도 비를 포함 31억 원을 투입해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중점 아래에 장자도 차도선 선착장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11일부터 장자도 여객터미널로 정식 취항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장자도 여객터미널 선착장은 장자도항 서쪽 외측부에 계단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말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차도선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선적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차량을 선적하기 위해서는 군산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선적할 수밖에 없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운항시간도 길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객이 많았다. 이에 시는 장자도에 차도선 선착장을 구축하고 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한 매표소, 대합실 등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사와 협의 후 최종적으로 항로심사를 마쳐 오는 11일 정식으로 취항한다. 시 관계자는 "장자도 차도선 취항으로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말도, 명도, 방축도, 관리도 섬주민들의 정주여건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개통될 말도~방축도 트래킹코스도 연계되어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7일 공무하고 연구하는 군산시의회를 만들고 의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초선의원(7명) 간담회를 실시했다.

## “군산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 시의회, 초선의원 역량강화 간담회 실시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7일 공무하고 연구하는 군산시의회를 만들고 의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초선의원(7명)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무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면밀한 검토 능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여 그동안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원 입장에서 느끼고 배운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초선의원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영일 의장이 참석하여 4선 의원으로서 다년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의원의 역할과 지방의회 운영, 조례안, 예·결산 심사 기법 등을 주제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의회 규정과 회의 진행 절차 등을 설명

했다. 이어 집행부서 예산계장으로부터 군산시의 재정 규모 등 예산 사항 전반에 걸친 브리핑 보고도 이루어졌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하였고, 지방의회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시의원들도 변화의 선두에 서서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앞으로 군산시의회는 동료의원들과의 간담회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통해 공무하고 연구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은 "비록 초선이지만 민의를 받들고 지역의 민원해결을 우선하는 열심히 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며 "지역 내 현안들을 정확히 보고, 듣고, 배워가면서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겸손한 자세로 지역민과 군산시민과 소통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민선 8기 시민체감형 정책 발굴 '박차'

###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익산시는 민선 8기 익산 대도약의 합찬 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시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병렬 우석대학교 명예교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의 새로운 비전과 주요 정책공약에 대한 소개와 올해 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공유, 자문위원 제안사업 발표와 토론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자료 순으로 진행됐다. 익산 대도약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정 방향과 분야별 주요 공약에

대한 소개를 시작했으며 농촌협약·농촌 공간 정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철도 유희부지 활용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시의 변화와 혁신을 견인할 올해 주요 공모사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광역환승체계구축 및 복합개발 국립 익산치유의 숲 조성, 익산도로올 강화정책 등 10여 개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진행됐다. 정책자문위원 제안사업으로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온라인 교육플랫폼 확대, 식품산업 거점 기능 강화 그리고 지역 기반 업그레이드 및 주민편의향

상을 위한 사업 등이 있으며 설명과 위원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현을 시장은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가 시의 미래발전 위한 조연자 역할을 해온 만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자문을 부탁드린다"며 "대규모 공모사업과 민선 8기 공약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 연구기관, 전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적 해안을 가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시의 당면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과 신규정책 제안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배달의명수' 시민사랑 감사 이벤트 추진

전국자자체 최초로 출시된 공공배달 앱 '배달의명수'가 매출액 200억원을 달성했다. 군산시는 '배달의명수'의 매출액 200억원 달성을 기념해 시민 사랑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배달의명수'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배달플랫폼 이용 증가수로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에게는 군산사랑상품권 할인혜택(10%)을 제공해 '배달의명수' 이용이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착한 소비'로 인식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다. 그 결과, '배달의명수'는 배달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지 2년 3개월만에 매출액 200억원을 달성했으며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배달앱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시민사랑 감사 이벤트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되며 '배달의명수'를 이용하는 시민 총 668명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행사기간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5만원부터 20만원까지의 할인쿠폰을 1등부터 3등까지 16명에게 차등 지급한다. 또한 4등부터 7등까지는 주문할 때마다 주어지는 배명의마블 게임의 응모 결과에 따라 3천원부터 2만원까지의 할인쿠폰을 650명에게 제공한다. 시민사랑 감사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달의명수' 앱 배너 및 고객센터(1899-8103), 군산시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배달의명수가 매출액 2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항상 성원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으로 사랑받는 '배달의명수'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가맹점 1천 530여 개소 가입자 13만6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배달의명수'는 점진적으로 업종 카테고리를 다양화하고 선물하기, 마이리지, 구인/구직 등 각종 편의기능도 추가해 온라인 종합쇼핑몰로의 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시정홍보관 정비

군산시가 민선 8기를 맞아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도시 홍보를 위한 시정홍보관 정비로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간 시청 로비는 시청 주요 홍보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이번 정비는 기존 노후된 공간을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정비내용은 색선별 홍보관을 운영하던 것을 대형 LED(500인치)를 설치해 키오스크 기능으로 분야별 검색을 통해 대화면으로 군산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했다. 검색 분야는 청사안내, 부서·직원찾기, 관광안내도 등 다양한 시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시 시



정홍보 영상을 구현해 시청 홍보창구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가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공간으로 식물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해 미세먼지, 공기 정화 등 실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변모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재난안전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익산시가 재난관리평가에서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1위로 평가받았다. 시는 7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 관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 다중시설 위기관리 등 재난 대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표창 포상금,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관련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을 진단·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12일부터 전국 시행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오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민·출입관리) 경우, 정부24 앱은 7월 말 서비스예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개인 정보(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를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하면, 이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신분 확인을 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에 서비스 등록(가입)해야 한다. 가입은 정부24 앱에 로그인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본인인증과 기본 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으며,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 등록하여 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